

수요 인터뷰

태고종 개혁·정재 사회환원 "새바람"

—늘 양복차림이라 스님으로 보다는 아직도 태고종 '총무부장'으로 더 유명합니다.

▲대전 보문고교사절 삭발한 후 75년에 태고종 총무부장직을 맡아 그 자리에서 12년간 일해서 그런가 봅니다.

—태고종이 역사적으로는 조계종과 그 맥을 함께 하지만 '태고종'을 들고 나온 것은 올해로 꼭 25년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태고종이 울려서 새로워 지

복지사업에 대한 계획도 바로 태고종 개혁과 발맞추는 불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창의 6만평 부지에 요양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설을 설계하고 있고 또 울산에도 복지법인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외형적인 불사가 바른 신행을 이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여법한 불교개혁이 이뤄지도록 동학회원인 34명의 평의원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원

이규범 이사장

대담: 최정희 편집국장



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고종사의 산 증인이고, 또 종무원장의 주역으로 2개월전에는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의 이사장직을 맡아 종풍쇄신에 앞장서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재단에서 평창에 대규모 복지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했는데, 재단법인 태고원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전통사찰보존법이 발표되면서 태고종은 종단목적법인으로 「사단법인 한국불

교 태고원」이라는 생활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꽃피우는 실천불교가 중요해졌습니다.

—기대가 큼니다. 특히 조계종이 개혁과정을 거쳐 '개달음의 사회화'를 선언했고 포교와 교육, 신행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궤를 같이 하여 태고종에서도 '종단발전특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26일 각 분과위원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

이론보다는 생활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꽃피우는 실천불교가 중요해졌...

이론보다는 생활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꽃피우는 실천불교가 중요해졌...

"평창요양원등 각종 복지불사 주력할터" '분규사찰' 조계·태고종 상호양보로 해결

교 태고종 중앙회'를 설립했어요. 종교법인법이 없으므로 민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종도들의 이해부족으로 해체하고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종 유지재단」을 만들었으나 역시 재산관리문제 앞에서는 이해가 엇갈리는군요. 그래서 다시 「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회」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지재단을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제가 이사장에 선임됐습니다.

—이름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은 재산 앞에서 초연할 수 없는 중생심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누누히 당부하셨는데도 아야 그 공부가 어려운가 봅니다.

종풍쇄신 위한 결사

▲삼보정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거죠. 태고원은 정재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 즉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를 널리 퍼는데 활용하면서 태고종의 종지종풍을 되살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는 특위의 부위원장으로서 총무부과위원장까지 맡으셨는데 특위 구성의 배경과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고종이란 이름을 들어나온것은 25년전이지만 역사적으로 볼때 태고종은 뿌리의식을 가진법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태고종은 특색도 없고 공지를 갖지 못하고 열등의식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더 심하게 표현하면 위기의식이 광배하고 있다고 할까요. 걱정하는 눈으로 본다면 백척간두에서 서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마음이 모여져 종단 중흥을 위한 결사종 풍쇄신특별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특위에서는 종단발전과 도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종지종풍을 회복시켜 빛났었던 종단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역점을 불방집합니다. 관념적인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종풍쇄신을 하려는 거죠.

예를들면 하루 한시간씩 실천수행을 한다든지, 하루에 한가지씩 이타행위를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합니다.

—불교계의 이같은 자각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조계종과 태고종이 40년 묵은 감정을 풀기위해 종단대표들이 마주했는데 이번에는 꼭 '분규사찰'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태고종측 사찰분규 종식위원회 위원장이시므로 누구보다 관심이 크고 어찌든 무거우시 겠습니다.

실천불교 운동 앞장

▲양종단은 종조와 종지가 한무리였음에도 이교도보다 더한 가슴아픈 분쟁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 상호 양보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죠. 어느쪽도 자기 이익을 앞세우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저를 비롯해 양측 실무자들이 자주 접촉해 해결방안을 찾고 있고 양측 모두 해결될 것이라 확신과 열망을 갖고 있으므로 좋은 결실을 거머쥘 겁니다.

—조계·태고의 미해결 사찰분규를 놓고 일부에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는데

약력

- 1942년 3월 20일 청양 생
- 1964년 동국대 불교학과, 1967년 석사과정 수료
- 1969년 용문대학교 상사로 특도
- 현재 태고종 중앙회 부의장, 천중사 주지, 월간 「불교」 사자

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말 것인가, 안 말 것인가' 그것이 궁극이라는 거죠.

▲그 문제는 제가 단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행 판단하고 해도 재산처분이란 단순논리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류재산을 좀더 뜻있게 활용할 수 있다면 자산의 용도변경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80년에 거뒀을 뿐 최근 다시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태고종 승적을 가진지 35년, 교계에서 몇 안되는 '행정총'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

▲총무원에 들어 온지 올해로 꼭 20년입니다. 저로서는 나름대로 했지만 '부처님 법' 죽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태고원'을 잘 운영하여 태고종의 발전과 함께 21세기 한국불교를 새롭게 여는데 이조를 더할 수 있도록 남은 여생 다 바치겠습니다.

(정리=이경숙 기자)



나는 같이 수행을 했다고 남들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 어머니께서 거창 연수사에서 기도 끝에 낳았다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다르게 수행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만 내게 다가오는 인연의 끈들로 내 삶의 울타리를 엮어 왔기에 크게 부끄럽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내 삶의 울타리는 누구 못지않게 부처님의 법향으로 장식된 것이란 자랑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나의 생활은 부처님 법의 준거함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불교와의 인연은 동국대학을 입학하면서 내 삶의 힘으로 뿔어져 왔다. 1959년이었다. 당시 동국대 총장이었던 백성복 박사는 신문방송학과 신학을 위해 동국대에 인채소를 설치했었다. 그리고 인쇄소에서 일을 할 학생을 모집했는데 그때 인쇄소에서 일했던 근로학생들은 별도의 기숙사까지 가졌었다. 그 근로장학생에서 만난 동료들이 지금은 불교계 인력의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이종찬 정몽길 성용길교수라든가 김희두 부장검사등이 그들이다.

박종일 <대한불교대원회 회장>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덕스님께서 서문부터 끝까지 원고를 쓰셨고 나는 열심히 책을 만들었다. 신도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하도록 좋았다. 그래서 대각사에서 매주 한번씩 공덕스님을 모시고 법회도 갖게 됐다. 그 법회가 바로 불광법회이고 법회가 활성화되어 잠실에 공덕사까지 서게 됐다.

그런 과정속에서 나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글없이 느낄 수 있었다. 공덕스님의 마하반야바라밀 신행문등을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제 한국불교의 큰 책이 되었다. 또 내가 2년간 일체의 부담을 짊어지고 인쇄를 하며 시작한 「불광」은 지난해 문체부로부터 우수잡지로서까지 선정됐으니 큰

"삶의 울타리 부처님 법향"

'불광' 창간등 인쇄포교 인연에 감사

아름다운 나는 그곳에서 인쇄법의 맛을 알게 됐고 지금까지 인쇄업을 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문예연 신춘인쇄주식회사는 나와 불교의 인연을 더욱 두텁게 쌓는 교량이 됐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가 커 내는 「불교학보」를 30년이 넘도록 내가 맡아 인쇄하게 된 것도 동대에서 자란 나의 인쇄인연 덕택이다. 최근까지 「불교학보」는 31집이 나왔는데 그 모두를 내가 인쇄했다.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의 보람은 「불교신문」과의 인연이다. 조계종이 조계사의 개운사로 나뉘어져 내분을 겪고 있던 때였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셨던 석주스님과 총무부장 공덕스님으로부터 「종단 기관지 대한불교신문」이 인쇄시설이 없어 폐간 위기에 처해 있으니 신춘인쇄를 대한불교 공무국으로 해달라'는 급한 연락이 왔다. 나는 존경하는 스님들의 청

을 거절할 수 없었다. 신춘인쇄란 간판을 내리고 「대한불교 공무국」이란 간판을 걸었다. 나는 아직도 그때의 현관식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볼때마다 감회가 새로울 뿐이다. 그 후 2년간 나는 사업의 주요 거래사인 정부의 인쇄회사를 일체 받을 수 없었다. 덕분에 회사는 무척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처님 일을 한데 대한 보람은 크다.

대학을 다닐때부터 30년이 넘도록 사업을 하고 있는 오늘까지 나는 여러 큰 스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공덕스님과 그의 위한 인연은 내 삶을 불지라도 삼으로 이끌어 주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쇄법의 맛에 감사드립니다. 인쇄업을 통해 불교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인연에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알고 있는 불광법회 회장이라 자리에 오 나는 겸허한 마음과 수행을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마하반야바라밀.

21세기를 • 이끌어갈 • 선재를 • 찾습니다

1995학년도 법사원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학(불교과)통신과정 대학원(법사원)직장 및 통신과정

국내최초 영상비디오 통신강좌 실시!!

법사원 불교대학 각 과정 2년제

- 교계 정예포교 지도자 양성목적으로 설립함.
- 대중불교운동과 포교능력배양을 위한 최고의 교과과정과 강사진.
- 저렴한 학비로 信·解·行과 복덕이 원만한 지도자 배양.

1. 모집인원: 불교과 통신과정 00명, 법사원 직장 00명, 통신과정 00명 연구원: 96년 개설예정
 2. 입학지역: 불교과/고졸이상의 학력자·법사원/불교대학 2년 졸업자 이상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1월 1일부터 2월 25일 18:00까지
 4. 전형방법: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5. 면 집: 법사원 지원자는 2월 26일 면접(오전 10시부터)
 6.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1통(본대학 소정양식)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최종학력증명 1통
 - 4) 반명함사진 3매
- 특 전 ●
- 1) 불교과 졸업 후 법사고시 합격자에 한해 법사증 수여, 법사과에 입학 자격.
 - 2) 각종 장학제도 마련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는 장학금을 지급함.
 - 3) 법사원 졸업자는 법고교시를 보며 합격자는 법제종수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 교육부에 문의 바람.

교육과정 및 과목·강사

대학(불교과)은 통신과정으로 녹음테이프와 교과서를 공부하며 대학원(법사원)은 출석수강 및 통신과정이 있으며 통신과정은 국내 최초로 비디오 테이프를 지역분교에서 공부하게 됨. 서울, 경기 지역은 본교에서 따로 공부함.

<대학> 불교과 2년

	1 학 기	2 학 기
1 학년	불 타 의 생애 (목정배) 종 교 학 (김항배) 인도문화(철학) (신성현) 불 교 개 론 (해주스님)	불 전 개 설 (목정배) 인 도 불 교 사 (전계성) 종 교 사 회 학 (이동준) 중 국 문화(철학) (고재욱)
2 학년	원 시 불 교 개 설 (조홍길) 대 승 불 교 개 설 (권기중) 불 교 와 사 회 (박경준)	중 국 불 교 사 (차자석) 불 교 계 율 사 상 (목정배) 불 교 포 교 학 (김효성) 대 승 불 교 보살 사 상 (계관스님)

<대학원> 법사원 2년

	1-2 학 기
1 학년	아 함 경 (목정배) 법 구 경 목요논강 천 수 경 (김효성) 불교의식-이론과 실기 (운곡스님)
2 학년	구 사 론 학 법 화 경 금 강 경

<연구원> 1996년도 예정

전공과목 선택		
열	반	경
기	신	론
화	업	경
중		론
원	각	경
천	태	학

법사원 불교대학 학장 철학박사 목정배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사회(부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88-6 뉴장충빌딩 5층
전화(02)266-1827, 264-1827, 팩스(02)266-1827

지방분교 및 문의처

부산분교: (051)818-0575 어린이불교문화원 / 울산분교: (0522)65-2727 울산불교문화원 / 고양분교: (02)381-1234 성보사포교원 / 여수분교: (0662)651-4658 정회일 법사 / 원주분교: (0371)47-0617 불심사 / 김해분교: (0525)34-8807 조유식 법사 / 포항분교: (0562)44-7597 이인식 법사 / 대구분교: (053)941-0311, 954-7395 권순경 거사 / 인천분교: (0336)635-3748 심리래 법사 / 안산·시흥분교: (0345)498-7700-2 현법스님 / 한국스카우트 불교지도자회: 735-8165 최광 김해인 법사·사무국장 최종규 법사 / 청주분교: (0431)271-8244 김용우 법사 / 경주분교: (0561)749-2395 박호봉 거사 / 제주분교: (064)22-5027 현차생 법사 / 안양불교문화원: (0343)72-7577 신숙혜 법사 / 강화분교: (0349)937-3272 공도식 법사